

모기 많은 곳 어디?... '방역지도' 나왔다

광주 남구 데이터 분석 제작 월산동·월산4동 順 많아 내년부터 취약지역 집중방역

광주시 남구지역에서 모기로 인해 시민들이 가장 많이 고통받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
남구가 최근 3년간 모기 관련 민원이 발생한 지역의 데이터를 분석해 '모기 제로 방역지도'를 제작했다. 남구는 내년부부터 이 지도를 활용해 모기 취약지역을 선정, 집중 방역한다는 방침이다.
22일 남구에 따르면 '모기 제로 방역지도'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방역 업무와 관련해 민원이 발생한 지역의 데이터를 취합, 민원 발생지역과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방역 및 유해 해충 발생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됐다.
방역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남구 16개동을 4개 권역으로 구분, 각 권역별 민원 발생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만들어졌다. 1권역은 양림·사직·월산·백운1·백운2동, 2권역은 주월1·주월2·월산4·월산5동, 3권역은 방림1·방림2·봉선1·봉선2동, 4권역은 효덕·송암·대촌동 등으로 구성됐다.
각 권역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418건의 방역업무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1권

역으로, 이 기간 총 163건(38.9%)의 민원이 접수됐다. 이어 제2권역이 106건(25.3%)으로 뒤를 이었고, 4권역과 3권역은 각각 92건(22%)과 57건(13.6%)으로 분석됐다.
동별 현황으로는 월산동이 5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월산4동 42건, 백운2동 41건, 주월1동 38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유해 해충 발생에 따른 방역 요청 장소로는 주로 주택가 주변이나 공원, 하천 주변이었다.
1권역에서 해충 민원이 많이 발생한 이유로는 사직동 등에 수목이 풍부한 사직공원·광주공원·까치고개 등이 있고,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후화된 하수관이

매설돼 모기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구는 분석 결과를 2020년 방역사업 계획 수립에 반영, 다수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1권역과 2권역에 대한 집중 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모기지도도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방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방역 계획도 수립할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모기 제로 방역지도는 어느 지역에서 모기와 파리 등 유해 해충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제작됐기 때문에 유해 해충을 줄이는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주렁주렁' 도심서 키운 청포도 수확 22일 광주시 북구 중흥2동행정복지센터 앞마당에서 동직원, 자생단체 회원들이 탐스럽게 익은 청포도를 수확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5·18교육관·광주도시공사 위탁·임대사업 광주시 감사위, 협약·임대차 계약 위반 적발

광주시 산하 5·18민주화운동교육관과 광주도시공사가 식당, 사무실 등 위탁·임대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5·18교육관의 위탁 협약 위반, 도시공사의 임대차 계약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시정하도록 했다고 22일 밝혔다.
5·18교육관은 2017년과 2018년 각각 식당과 사무실 위탁 업체를 선정했는데, 이 업체가 교육관 측에 알리지 않고 다른

업체에 불법으로 전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근린생활시설을 사무실로 무단 용도 변경·사용했다. 교육관 측은 공유재산을 잘못 평가해 2700만원 상당의 사용료를 제대로 받지 않았고 매월 23만원의 전기료도 제대로 부과하지 않았다.
도시공사는 운영 중인 골프 연습장 내 스크린골프장·매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임대업체가 제 3자에게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운영권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어린이 교통사고 "오후 2~6시 가장 취약"

하교 시간대 4시간에 절반 몰려
행정안전부는 여름방학이 끝나고 가을 학기가 시작되는 시기에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사고에 주의해달라고 22일 당부했다.
특히 하교 시간대인 오후 2~6시에 초등학생 보행자 교통사고의 절반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년)간 초등학생이 보행 중에 당한 교통사고는 모두 1만461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743건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에서 일어났다.
월별로는 새 학년이 시작되는 3월(1302건)부터 꾸준히 사고가 증가해 5월(1676건)에 가장 많았다. 이후 여름방학 기간인 7월(1377건)과 8월(1146건)에는 줄었다가 9월(1274건)에 다시 늘어났다.
5년간 초등학생 보행자 교통사고에 따른 사상자는 1만4986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77명이 숨졌고 1만4909명이 다쳤다. 사상자를 시간대별로 보면 오후 4~6시가 4096명(사망 25명·부상 4071명)으로 가장 많았고, 오후 2~4시 3597명(사망 10명·부상 3587명), 오후 6~8시 2607명(사망 13명·부상 2594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동안에 전체 사상자의 51.3%가 집중됐다.
초등학생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 원인은 운전자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54%,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27%, 신호위반 17% 등 운전자 부주의에 속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행안부는 초등학생들은 좁은 골목길 등에서 갑자기 뛰어나오는 등 돌발행동을 할 수 있고, 키가 작아 운전석에서 잘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아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학교 주변이나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가는 차량은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고 횡단보도나 건널목에서는 일시 정지해야 한다. /김민석 기자 mskim@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58 **달뜨기** 23:33
해질 19:12 **달집** 12:42

뜨거운 처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겠다.

광주	맑음	22/30	보성	맑음	21/28
목포	맑음	24/28	순천	맑음	24/30
여수	맑음	28/27	영광	맑음	22/29
나주	맑음	22/30	진도	맑음	23/28
완도	맑음	24/29	전주	맑음	22/30
구례	맑음	22/28	군산	맑음	22/29
강진	맑음	23/29	남원	맑음	22/29
해남	맑음	22/29	축산도	맑음	22/27
장성	맑음	21/30			

◇ 바다 날씨

시/도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북서~북	0.5	북서~북	0.5	
남부	북서~북	0.5~1.0	북~북동	0.5~1.0	
남해	서~북서	0.5~1.0	서~북서	0.5	
서부	남반(동)	서~북서	0.5~1.5	서~북서	0.5~1.0
	남반(대서)	서~북서	1.0~1.5	서~북서	1.0~1.5

◇ 생활지수

- 경고
- 식중독
- 매우 높음
- 자외선
- 보통
- 미세먼지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11:53	06:37
	--:--	19:20
여수	간조	만조
	07:19	00:57
	19:43	13:52

◇ 주간 날씨

24(토)	25(일)	26(월)	27(화)	28(수)	29(목)	30(금)
☀	☀	☀	☁	☁	☀	☀
20/30	22/31	22/31	22/29	22/29	22/30	22/30

광주 빗공해 민원 최근 5년간 1849건

전남지역은 382건

광주·전남지역에서 연간 수백 건에 이르는 빗공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인구의 90%는 인공 조경으로 인해 은하수를 볼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광역 시도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에서는 최근 5년

(2014년~2019년 7월)간 1849건의 빗공해 민원이 접수됐다. 같은 기간 전남에서는 빗공해 민원 382건이 제기됐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3만 1474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광주시는 지난 2016년 9월 전체지역을 조경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해 빗공해를 방지하고 있지만 전남은 피해 방지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빗방사 허용기준을 적용한 지자체는 네 곳에 불과하다. /김용희 기자 kimyh@

고려고 공개자료 제시 교육청 감사 반박

시흥시 사전유출 의혹과 상위권 특별 관리, 성적 조작 등의 논란을 낳고 있는 광주 고려고가 공개자료 등을 통해 교육청 감사 결과를 반박했다.
이에 광주시 교육청은 "객관적 사실만을 지적한 것으로 학교 측 주장은 아전 인수"라는 입장이고,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 교육시민단체는 고려고 학사운영의 부정을 반교육적 범법행위로 규정하고 23일 광주북부경찰에 업

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려고 문형수 교장과 이환호 교감, 부장교사와 학부모 등은 22일 시교육청 별관 2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려고는 상위권 학생을 위해 성적을 조작하는 부도덕한 학교가 아니다"며 A4 용지 20여 장 분량의 반박 자료를 통해 시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를 부정했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호남동 대원빌딩 층별

"특별분양"

높은 전용면적 75%

11,12층 천정고 6M

분양가 470만원 ~

환기 공조 시스템 완비

중앙 냉난방 시설완비

300대이상 주차공간

"추천업종"

- 1 **휘트니스센터, 레저스포츠 시설**
- 2 **특급 한방병원, 공공기관 사무실**
- 3 **일반 / 공유오피스 사무실**
- 4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분양문의 : (주)대원빌딩

062) 234-1233

위치 : 동구 천변우로 369 (호남동 23-2)